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18

차　　　례

조선사회과학자협회

KASS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에 관한 국제토론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 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공동주최로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 년》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2018년 9 월 8 일에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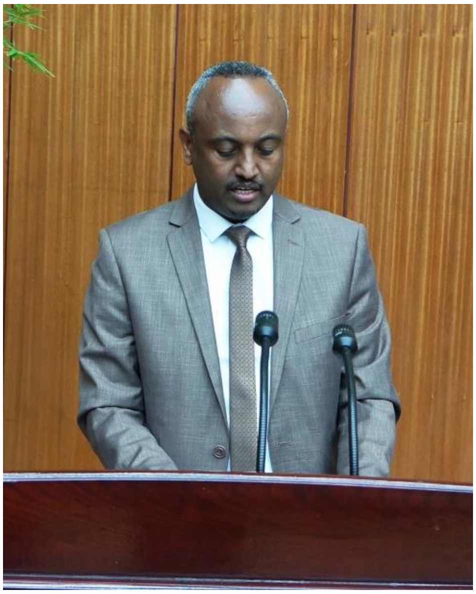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박광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제**김일성**상, 국제**김정일**상수상자인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1 부위원장인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동지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하리쉬 굽따 부리사장이 보고를 하였으며 여러명이 토론을 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니가투 다그나체우는 《아프리카혁명에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거대한 공헌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프리카나라들의 정치적독립과 민족적번영,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민주의자들의 《최후의 안식처》라고 하던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알제리인민들이 반제반식민주의 무장투쟁의 봉화를 추켜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아프리카나라들의 정치적독립과 민족적번영,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위대한 지도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아프리카혁명전선의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아프리카혁명의 은인, 수호자이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알제리뿐만아니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앙골라, 우간다, 또고, 나미비아를 비롯한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시였다.

오늘 아프리카나라들이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게 된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물심량면의 사심없는 지원의 덕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에티오피아가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1980 년대초 에티오피아는 자립적인 경제토대가 너무 빈약하였기때문에 새 사회건설이 부진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공업, 농업, 보건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일군들을 보내주어 에티오피아가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에티오피아인민들은 오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심어린 지원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아프리카인민들은 대륙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력력히 새겨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거대한 공헌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강좌장인 정호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으로 백승의 력사를 창조한 정치사상강국》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조선로동당이 밝힌 사상론의 원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70 년력사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력사,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였다.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가 일떠서고 전대미문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군사적침략과 비렬한 정치경제적봉쇄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이 믿음직하게 수호되였으며 오늘 우리 조국이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그 위력이 높이 과시되게 된것은 주체의 사상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창조와 번영의 가장 강위력한 무기인 주체의 사상론은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하여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세계는 주체의 사상론과 같은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강대해지고 번영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를 더욱 굳게 확신하고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이며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인 더모트 하드손은 《반제투쟁의 길, 주체의 길을 따라 걸어온 70 년》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지난 70 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승리에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정책에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피압박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나 반제투쟁의 일선에 서있었다. 창건이후 전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인민들의 커다란 고무와 도덕적본보기가 되였을뿐아니라 싸우는 인민들에게 수차에 걸쳐 국제주의적인 물질적원조도 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혹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드놀지 않은것으로 하여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2018 년 6 월 12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주앉아 협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알하싼 맴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사상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놀라운 발전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력사는 주체사상의 위대하고 고무적인 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70 년동안 주체사상은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전쟁책동과 위협 공갈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조선인민은 지난 70 년동안 발전도상나라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자기의 자원을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그들의 전쟁책동과 위협을 제압하여왔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단결과 애국주의, 자력갱생의 결과이며 그것은 인민의 지도자 **김정은**동지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최근 상봉과정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상봉은

주체사상보다 더 위대한 정신은 없으며 마음먹고 일떠선 인민을 멈추어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과시하였다.

또한 민족의 자주성과 발전, 진보의 비결이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창시하고 현실에 구현하시였으며 그분들께 충직한 인민들이 튼튼히 무장하고있는 주체사상에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풍부한 인적 및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기아의 고통을 겪고있는 아프리카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교훈을 준다.

나이제리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주체사상과 조선의 령도자들과 인민들에게서 많은것을 배워 인간의 행복과 피착취인민들의 권리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대학 강좌장인 조창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시하신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척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는 사람중심의 경제건설리론으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경제건설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적자립을 떠나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모래우에 집을 세우려는것과 같은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그 어느 나라의 경제건설리론에도 없었고 론의조차 할수 없었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변함없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단계에로 비약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강국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우월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립적인 경제강국을 건설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와 원대한 구상이 반영되여있다.



로씨야 다게스딴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인 이고리 보이꼬브 안드레예비치는 《로씨야사회과학자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험연구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로씨야의 지식인사회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을 연구하는것은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 원인에 의하여 절박한것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한 조선의 실례는 현대로씨야에 있어서도 매우 교훈적이다.

로씨야가 사회경제형태로서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대규모적인 기계생산축소와 인민경제체계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오늘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에 빠져들었던 그 력사적시기 (20세기말－21세기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놀라운 경제적비약을 이룩하여 현재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정학적비중을 높이고있다

로씨야는 21 세기 두번째 10 년대초 대외정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자주적인 대외로선의 실현을 전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경제모델을 세우지 못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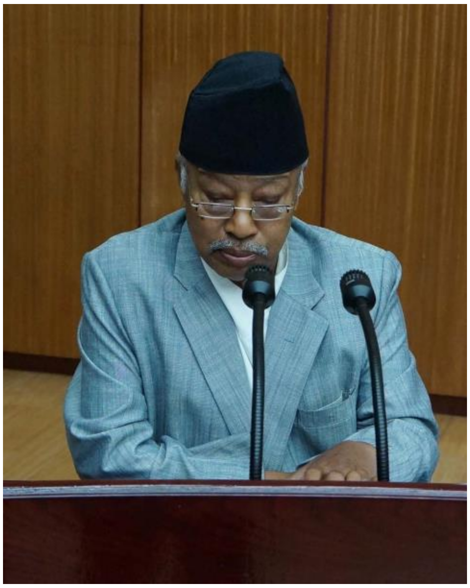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로씨야사회과학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정치체계와 경제체계를 세부적으로 연구하는것이 매우 적절한것이다.

그리고 로씨야사회과학자들이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것은 그 사회에 완성된 세계관적, 사상적기초가 없으면 진정으로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실현이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로씨야와는 달리 주체사상이라는 기초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사업에서 주체사상이 노는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고싶은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건설, 경제건설의 경험을 연구하는것이 로씨야의 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학술상 흥미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는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21 세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최후승리의 세기로 될것이라고 깊이 확신한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인 만주 라뜨나 사끼야는 《네팔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은 위대한 사상이며 네팔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팔의 평화애호적이며 진보적인 기자들은 2010 년 4 월 15 일 까뜨만두에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를 결성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광범한 대중속에 보급하였다. 우리는 네팔의 지식인들속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보급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우리 협회가 조직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김정숙동지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탄생일 경축모임들에는 상들과 정당 당수들, 교수들과 변호사들, 보도계인물들과 지식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있다.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시며 네팔을 비롯한 전체 진보적인민들의 위대한 수령들로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공헌은 세계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진보와 번영을 계속 이룩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토론자들은 토론을 마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 돐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만세!》 등의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네팔에서 주체사상전국토론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자주와 평화, 번영에 관한 네팔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2018년 9월 5일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이 토론회장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네팔의 국회, 정당, 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출판보도관계자들, 이 나라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축하발언들에 이어 기조보고와 연설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Peace and Prosperity based on Juche Idea
and Songun Organizations of Nepal
August 2018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 돐에 즈음하여 평양을 방문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2018년 9 월 11 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방문을 마치고 손님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피력하였으며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각국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아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크나큰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광범히 벌려나갈것이다.

손님들은 또한 당창건기념탑, 평양문화전시관, 평양지하철도 등을 참관하였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위한 강습과 강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위한 강습과 강의가 2018년 9월 10일과 13일에 진행되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습에는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을 비롯한 22개 대표단 71명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의에는 로씨야김정숙동지명칭 녀성동맹대표단을 비롯한 9개 대표단 26명이 참가하였다.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이 있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 진행

조선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이 2018년 9월 11일에 있었다.

모임에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일행,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가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회합으로 된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채로운 체육유희경기도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